

칸트와 선의지*

맹주만 (중앙대 철학과)

주제분
류

칸트 철학, 윤리학

주요
어

선의지, 의지, 선택의지, 이성, 의무, 선, 도덕법칙, 도덕적 감정

요약
문

칸트의 선의지 개념은 윤리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근본 의의를 아주 간명하면서도 압축적인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선의지에 대한 칸트 자신의 주장들과 이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나 해석에도 불구하고 선의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선의지에 대한 칸트의 여러 규정들은 그것이 등장하는 다양한 문맥 속에서 그의 도덕철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들과 특별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지 개념의 근본 의미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논문은 선의지 개념이 이성, 의지, 선택의지, 의무, 선, 도덕법칙, 도덕적 감정 등 그의 도덕철학의 또 다른 중심 개념들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의미연관을 규명함으로써 선의지 개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칸트의 선의지는 옳은 행동을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선택하는 의지로서 이미 그 자체 속에 도덕적으로 칭찬할만한 방식으로 행위 과정을 선택하는 자기의식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의지는 실천이성의 자기관계적 능력으로서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원천이다. 때문에 선의지는 그 자체가 본질에 있어서 이미 도덕적인 것으로서 도덕적 이성, 이성적 의지, 도덕적 의지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선의지는 의무 개념을 통해서 발견되고 또 그 때문에 도덕법칙 및 도덕적 감정 과도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명과 논증을 통해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철학적 기초를 이전의 서양철학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토대 위에서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선형적 관념론과 도덕적 실재론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어떤 행위의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가? 인간의 도덕성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도덕성의 근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들은 윤리학이 답해야 하는 근본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비록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칸트가 취했던 관점과 그가 내놓았던 답변들은 그 이전의 서양윤리학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른바 대상 인식과 관련하여 사고방식의 일대 혁명을 가능케 한 인식 관점(Erkenntnis- perspektive)의 전도를 일컫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Kopernikanische Wende)의 최종 귀착지이자 결정판은 윤리학의 영역이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는 정치와 종교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한 칸트의 구상과 그 철학적 면면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지평과 만날 수가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방식에 따라 시도한 세계 조망의 새로운 태도는 처음에는 『순수이성비판』과 함께 칸트 철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명제, 즉 “우리의 인식이 대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우리의 인식을 따른다.” 다시 말해 “사물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규정한다”라는 가정적 명제로 정립된다.¹⁾ 이 “가정”과 함께 칸트는 현상과 물 자체의 “구별”을 도입한다. 이 가정과 구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칸트 철학의 본령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칸트는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경험 가능한 현상의 세계에 한정하고, 동시에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무제약자를 추구하려는 이성의 월권을 폭로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무제약자에 대한 모순 없는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 결과 칸트는 오랫동안 형이상학을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든 전통적인 사변적 형이상학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방도를 제시해 주었다. 이를 우리는 서양윤리학의 역사에서 칸트가 처음으로 사용한 ‘도덕형이상학’(Metaphysik der Sitten)이라는 명칭과 그 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칸트에게는 도덕형이상학이야말로 학(Wissenschaft)으로서 가능한 형이상학의 유일한 경우이다. 그러나 칸트의 사유가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단은 저 멀리 『순수이성비판』에서 확립한 ‘관점 혁명’에 있다. 칸트가 기도한 이 혁명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계는 그 자체로 절대적이라는 가정을 포기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대신에 우리의 감각 경험과 결부되어 있는 모든 것은 공간과 시간 안에 있으며, 또 이 안에 있는 대상은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립한다. 이처럼 인식 주관과 관계하는 대상의 존재방식을 현상으로 정립하고 해명하려는 현상존재론으로서의 칸트의 선형철학을 특징짓는 학설이 바로 선형적 관념론이다.²⁾ 그리고 이 선형적 관념론과 함께 칸트는 현상으로서의 대상 세계와 관계하는 인간적 존재방식의 실제성(Wirklichkeit)을 신뢰하는 경험적 실재론을 내세운다. 따라서 칸트에게는 이 선형적 관념론과 경험적 실재론은 세계에 대한 보편타당한 지식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고 정당화되어야 할 근본 원칙이다.

1)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B XVI-XX 참조.

2) 현상존재론으로서의 칸트의 철학과 그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백종현, 「칸트: 현상의 존재론」, 『칸트와 형이상학』, <칸트연구 1>, 한국칸트학회편, 철학과현실사, 1995.

그런데 인식 관점의 전도에서 결과하는 인식 주관과 대상의 관계 규정의 역전 및 이로부터 얻어낸 현상과 물 자체의 구별, 이 양자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칸트는 이성의 실험에서 찾는다. 칸트가 실행한 이 이성의 실험은 관점의 전도와 현상과 물 자체의 구별이 우리의 인식의 입증 가능한 구성적 조건들과 일치하며, 또 자연 과학의 가능성 및 사변적 형이상학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 가정과 구별은, 칸트가 보기에는,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서 제기되고 야기된 모든 관심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 즉 이성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일치할 수 있는 조건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최종적으로, 물론 제한 역시 뒤따르지만,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정당한 자격과 권한을 갖고 통치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을 마련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현상계로서의 자연의 나라에 대비되는 실천이성이 관장하는 예지계 즉 자유의 나라요 의지의 나라이다.

칸트가 자연의 나라와 자유의 나라를 구별한 가장 중요한 의의는 그가 인간을 자연물(Naturwesen)과 인격(Person)이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보려고 한 데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의지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상계와 예지계는 플라톤의 현상과 이데아의 구분처럼 존재 영역에 대한 이분법적 조망이 아니다. 칸트의 그것은 철저히 인식 관점상의 구분이다. 즉, 현상계와 예지계는 제각기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비록 이로부터 적지 않은 칸트 철학의 아포리아가 발생하긴 하나 칸트가 견지하고 있던 근본 의도는 어디까지나 인식 능력의 한계 설정을 통해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연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성적 존재, 자유의지적 존재임을 확고히 하려는 데 있다. 만일 인간의 의지가 물 자체이면서 동시에 가능한 인식의 대상이라면 이는 인간의 모든 것이 자연의 기계적 법칙에 예속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 즉 자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유의지의 철학자 칸트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대상 인식의 가능 영역을 감각적 경험과 현상으로서의 자연에 제한해야만 비로소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원천적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바로 여기에 자유의 나라와 자연의 나라의 경계 설정이 함축하는 비판 철학의 효용과 의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판 철학은 이 경계 설정을 통해서 인간적 실천의 당위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가 인간이 자연의 나라에도 속하지만 동시에 자유의 나라에도 속하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단초는 『순수이성비판』의 ‘선험적 변증론’ 중의 순수 이성의 세 번째 이율배반에서 찾을 수 있다. 칸트는 여기서 “자연 법칙들에 따른 인과성이 유일한 것이 아니며, 자유에 의한 인과성을 가정하는 것도 필연적이다”라는 정립에 “자유란 없고, 세계 내의 모든 것은 오직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반정립을 대비시켜 놓고 있다.³⁾ 이 이율배반을 해결하기 위해 칸트는 결정론과 자유의 이념의 양립가능성, 즉 자유로부터의 인과성은 경험 세계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정되는 보편적인 자연필연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칸트가 ‘선험적 분석론’에서 그 일단을 밝혀 놓은 선험적 관념론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실제로 칸트가 보여준 것 전부는 자유의 사고가능성 즉 자유의 이념이지 자유의 실재성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순수이성비판』에서 현상과 물 자체의 구별을 통해 해결된 것은 이념으로서의 자유의 가능성이었다. 이 문제를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

3) *Kritik der reinen Vernunft*, B 472 이하.

『도덕형이상학정초』와 『실천이성비판』이다. 자유의 이념과 그 실재성을 상호 어떻게 연관짓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칸트는 이 두 저서에서 도덕적 의지의 실재성을 확고히 하는 이른바 윤리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 할 수 있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개념이 바로 선의지(ein guter Wille)다.

칸트의 선의지는 인간적 본질과 목적 규정의 터전인 자유의 나라를 환하게 비추어 주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다. 또한 선의지 개념은 도덕 원리 및 도덕적 행동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칸트의 도덕철학의 출발점이자 원천이다. 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전혀 도덕적 존재가 아니며, 도덕적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다. 바꾸어 말해서 인간이 여타의 동물들과 달리 도덕적 존재라 불리는 이유도 인간에게 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의지가 없다면 설사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라 불릴 수 있다 하더라도, 칸트가 보기에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의 개념이며 어떻게 발견되는가?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정초』의 제1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세계 안에서나 세계 밖 어디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⁴⁾

칸트의 설명에 의하면, 선의지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가령 유머, 상상력, 예술적 재능, 지성, 기지, 판단력과 같은 정신적 재능이나 용기, 결단력, 끈기 등과 같은 기질적 성질은 물론 부나 명예, 건강이나 행복 심지어는 권력과 같은 행운적인 요인들과 같이 인간의 다양한 능력이나 재능들이 많은 점에서 선하며 또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칸트는 그것들이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즉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악하고 유해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칸트는 이런 능력이나 재능들이 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심성에 내재해 있는 선의지를 토대로 해서 발휘될 때뿐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선의지의 원칙이 없으면 이들은 극단적으로 악하게 될 수도 있으며”, 또 이 “선의지는 그것이 야기하거나 가져다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미리 의도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의욕 자체 때문에 선한 것이다.”⁵⁾ 따라서 우리가 통상 선하다고 하는 많은 행위나 성질들은 그것들이 선의지를 동반하지 않는 한 조건적인 선에 지나지 않으며, 오직 선의지만이 제한 없이 무조건적인 선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아무리 훌륭한 이론적 탐구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목적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조건적 선이다. 이런 점에서 단적으로 선의지는 “옳은 행동을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선택하는 의지”⁶⁾로서 그것은 이미 그 자체 속에 “도덕적으로 칭찬할만한 방식으로 행위 과정을 선택하는 자기 의식적 성향”⁷⁾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지에 대한 칸트 자신의 주장들과 이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나 해석에도 불구하고 선의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하비슨에 의하면, 『도덕형이상학정초』에서의 선의지에 대한 선언적 명제의 의미와 아울러 선의지에 대한 칸트의 여러 다른 주장들에

4)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마이세델판 VII권, 18쪽.

5)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19쪽.

6) 임혁재, 『칸트의 도덕철학 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59쪽.

7) B. Aune, *Kant's Theory of Morals*, Princeton/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3쪽.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의지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⁸⁾ 선의지 개념이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러한 평가는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칸트의 선의지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는 데 있다.

2. 이성과 의지

칸트는 선의지를 대부분 실천이성, 의지, 의무의식, 도덕법칙, 도덕적 감정 등 자신의 도덕철학의 핵심 개념들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선의지를 전제로 하여 저 개념들의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도덕성의 최고 원리의 확립과 그것의 올바른 사용과 실천을 『도덕형이상학정초』와 『실천이성비판』에서 논구하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형이상학정초』의 제1장의 첫머리에 명시되어 있는 선언적 명제와 같이, 선의지란 욕구나 충동 및 애착이나 경향성과 같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간직되어 있는 선한 도덕적 본성이자 소질을 뜻하며, 아프리오리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칸트는 어떤 행위를 선의지를 통해서 의도하게끔 하는 아프리오리한 실천적 능력이 인간의 이성 자체, 즉 실천이성에 이미 주어져 있다고 본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이때의 선의지는 이미 그 자체가 순수한 실천 이성의 능력이며, 이성적 능력의 표현으로서 ‘작용하는(wirksam) 의지’이자 이런 의지가 지니고 있는 힘이다. 그러므로 선의지는 특수한 하나의 의지이면서 이성이며, 또 소질이면서 능력이다. 이처럼 이성과 의지에 대한 칸트의 이해와 사용은 일상적인 의미는 물론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해도 아주 독특하다. 때문에 이성과 의지의 관계에 대한 규명은 선의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순수이성비판』에 제시되어 있듯이 칸트에게 오성(Verstand)은 모든 진리의 원천인 규칙을 통해 현상을 통일하고 결합시키는 능력 또는 직관의 내용을 결합하고 정돈하는 능력, 한마디로 경험 가능한 대상들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자발적 인식능력이다. 그리고 오성과 대비되는 좁은 의미의 이론이성 혹은 사변이성은 사고하는 능력으로서의 오성에 어떤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즉 대상들과 직접 관계하는 오성의 여러 규칙들을 다시 하나의 원리 아래 통일하는 등 기본적으로 대상과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성활동을 통일하고 체계화하는 이념의 능력 또는 추리의 능력이다.

반면에 “하나의 동일한 이성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⁹⁾ 이론이성과 전혀 별개의 이성이 아니라 단지 그 사용에 있어서만 구분될 뿐인 실천이성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활동을 산출하는 이성, 다른 것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을 스스로 규정하는 자기관계적 능력이다. 이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 역시 자유이어야 한다. 그의 의지가 자유가 아니라면 실천이성은 활동 불가능하다. 칸트는 더 나아가 이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의지에 자기입법적인 능력 즉 자율성이라는 특성을 부여한다. 이는 인간의 의지가 자기원인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부여한 이성적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자발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실천)이성과 의지의 근원적 일치라는 사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의지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훨씬 뛰어 넘는다.

8) W. G. Harbison, “The Good Will”, in *Kant-Studien* 71 (1980), 47쪽.

9)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16쪽.

때문에 이와 같은 이성과 의지의 관계는 자유의지, 즉 칸트의 용법으로는 “자유로운 선택의지”(freie Willkür; arbitrium liberum)라는 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곧 칸트가 말하는 의지(Wille)와 선택의지(Willkür)의 차이를 자유의지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의 경우에 “자유로운 선택의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순수한 실천이성 혹은 순수 의지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구능력으로서의 의지 즉 선택의지이다. 이는 칸트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할 때나 혹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장 일상적인 의미에서 사용할 때에 해당한다. 이런 능력은 도덕법칙과 경향성 사이에서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옳바르 혹은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 다른 또 하나는 순수한 실천이성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에 상응하도록 자신의 선택의지를 제약하는 이성적 존재자의 욕구능력이다.¹⁰⁾ 이 경우 “선택의지”의 “자유”는 이미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서 도덕성의 자기요구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 자신이다. 다시 말해 “외적 강제나 내적 충동이나 습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 선택의지가 규정되는 경우에만 선택의지는 자유이다.”¹¹⁾ 이런 의지는 이미 어떤 도덕적 사태를 지향하도록 아프리오리하게 제약되어 있다. 이렇게 선택의지를 규정하는 의지, 이것이 칸트의 철학에 고유한 의지의 자율이자 도덕적 자유이며 곧 순수한 의지이다. 이러한 의미의 의지는 자신의 의지를 자신에 일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의지, 자기입법적 의지이며, 그런 의지가 인간에게 있음을 칸트는 선의지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순수한 의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한 실천이성 자신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선택의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상 중립적인 자유로운 의지이다. 하지만 만일 이 중립적인 의지가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거해서 규정되면 자율적 의지요, 다른 것에 의해서 규정되면 타율적 의지가 된다. 이때의 자율적 의지는 대상으로서의 의지를 스스로 규정하는 도덕적 의지 또는 이성적 의지이다. 칸트가 이성과 의지의 관계를 적시할 때 대부분 (순수한) “실천이성이 의지의 규정근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자유)의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며, 또 아직 자신을 입법적 능력의 원천이자 순수한 도덕적 활동성으로서의 의지 자신에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선택)의지를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의미에서도 이성 자체는 최고의 이론적 내지는 관상적 사유 능력이었으며, 반면 의지는 이성의 지시를 받아 행위하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칸트에게서는 한편으로는 이런 전통적 구분법이 유지, 수용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양자가 동일한 능력의 양면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의 모든 사물들은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즉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또는 의지를 갖는다. 행위를 법칙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의지는 실천이성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성이 의지를 불가피하게 규정한다면, 그러한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인식되며, 또한 주관적으로도 필연적이다. 다시 말해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과는 무관하게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즉 선택한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성이 혼자 힘으로 충분히 의지를 규정하지 못한다면, ... 의지는 주관적 조건들(어떤 동기들)에 종속해 있는 것이며, 한마디로 그런 의지는 충분히 그 자체로 이성

10) K. Steigleder, *Kants Moralphilosophie. Die Selbstbezüglichkeit reiner praktischer Vernunft*. Stuttgart/Weimer: J.B. Metzler, 2002, 4쪽 이하 참조.

11) P. Stekeler-Weithofer, “Willkür und Wille bei Kant”, *Kant-Studien* 81 (1990), 308쪽.

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¹²⁾

결국 실천이성 또는 의지는 어떤 행위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원리와 근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규정하느냐,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것에 의존해서 (그릇되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과 종류가 달라진다. 전자가 자기입법적 능력이요 자기관계적 행위능력으로서의 이른바 순수한 실천이성 혹은 순수한 의지이다. 그리고 후자는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을 통해서 그 잘못된 사용을 경계하고 있는 경험적 실천이성이다. 이 경우 선택의지는 이 두 가지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이 보편적 법칙으로서 타당한 준칙이라는 의지 자신의 도덕적 요구에 따랐느냐 아니면 경향성의 유혹에 굴복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을 구분할 수 있다. 결국 넓은 의미의 실천이성 혹은 의지는 이 둘과 모두 관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의지와 선택의지는 “동일한 능력의 두 가지 다른 사용”이며,¹³⁾ 더욱이 한편으로는 “법칙의 입법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칙의 집행자”이기도 한 동일한 의지의 두 가지 기능이다.¹⁴⁾ 다만 법칙의 집행자로서의 선택의지는, 칸트가 정언명법과 가언명법을 구분하고 있듯이, 그 자신이 자발적으로 어떤 요구에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맹목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성으로서의 의지이다. 칸트에 따르면, “의지란 어떤 법칙의 표상에 따라 자기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능력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이성적 존재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다.”¹⁵⁾ 즉,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 함은 어떤 행위의 의식적 의욕에는 언제나 그의 의지 작용이 수반되며 또 이러한 행위는 준칙이나 원리 없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이기에 자신의 이성적 원리에 따라 행위하며, 이는 인간의 의지가 이성적 법칙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성적 존재이자 도덕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맹목적 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맹목적이면서 충동적인 의지는 동물적 경향성의 또 다른 명칭일 뿐이다. 이처럼 인간, 이성, 의지라는 삼 요소가 내적으로 긴밀한 연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데서 칸트의 도덕철학의 근본 성격을 잘 엿볼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을 종합하면, 칸트의 진정한 의도는 순수한 실천이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수한 의지이며, 이러한 의지가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의지이자 도덕적 의지라는 것, 따라서 (실천)이성과 의지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선의지라는 것을 보여주려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실천이성의 본질은 자기입법적인 순수한 의지적 작용에 있으며, 그것이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선의지이다. 이 같은 자기관계성을 근본특징으로 하는 순수한 실천이성을 다루고 있

12)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41쪽.

13) L.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201쪽.

14) H. Hudson, “Wille, Willkür, and Imputability of Immoral Actions”, *Kant-Studien* 82 (1991), 187쪽.

15)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59쪽. 『실천이성비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의지란 표상들에 상응하는 대상들을 산출하거나 이런 대상들을 실현하도록 (자연적 능력이 충분하든 그렇지 못하든) 자기 자신을, 즉 자기 원인성을 규정하는 능력이다.”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바이세델판 VII권, 120쪽.

는 저서가 바로 『도덕형이상학정초』였다. 무엇보다도 칸트가 의도하고 있는 이성적 의지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건은 그가 이성적 존재자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이미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때의 의지는 이미 그 자체가 도덕적인 이성적 의지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달려 있다. 칸트에게 있어서는 “이성적 존재자란 곧 도덕적 존재자”¹⁶⁾이며 동시에 인간에게 “의무를 명령하는 입법자”(Gesetzgeber des Pflichtgebots)¹⁷⁾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의지 혹은 의지의 자유 혹은 자율적 의지의 존재 이면서 동시에 도덕법칙의 지배를 받는 의지적 존재이다. 결국 이성이 의지를 규정한다는 것은 의지가 의지를 규정한다는 것이며, 이런 의미의 순수의지는 곧 자기 입법적 의지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순수한 실천이성이 지니고 있는 자기관계적 특성에서 성립하는 이성적 의지의 상호관계는 칸트의 도덕철학의 특징과 성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3. 선의지의 “선”

유한한 인간의 자기입법적 자유의지가 이미 이성적 존재자라는 개념에 전제되어 있다면, 이성과 의지의 이런 관계는 동시에 선의지에서의 선이 갖는 의미와 성격도 결정한다. 조건적 선이 아닌 무조건적 선으로서의 선의지, 즉 선한 의지란 단적으로 의지의 선함이며, 따라서 이는 순수한 의지 자체가 갖는 특징이다. 또 이러한 의지는 이성적 의지로서 자신에서 발원하는 자발적인 의지이며 도덕적 의지이기에 다른 무엇에 의해서 도출되거나 규정되는 파생적 개념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의지의 선함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윤리설처럼 윤리학적 원리를 도출해내는 토대가 되는 초경험적인 특정한 실재(reality)로서의 선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칸트에 의하면 선의지의 선함은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의 욕구나 목적처럼 조건적이거나 자기 편의에 따라 달라지고 결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선의지가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선의지의 선이 선행하는 실재나 추구되는 대상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의지 자체로부터만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향성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때문에 그 자신에게는 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자기입법적 의지로서의 자기 자신에 복종하려는 의지가 곧 선의지의 “선”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의지의 선은 의지가 성취하고 실현하고자 한 목적이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선의 조건이 되는 무조건적인 최고선으로서 의지 자신의 자기 규정에서 발원하는 것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정초』에서 이러한 선의지 즉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 안에서만 발견되는 순수한 실천이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선의지를 도덕의 기초와 도덕성의 근거로서 확고히 하는 일이 도덕철학자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선의지에 관한 선언적 명제에 등장하는 ‘무제한성’(ohne Einschränkung)은 선의지의 ‘무조건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으며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따라서 더 이상의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는 자기지시적 개념 또는 “자기설명적”¹⁸⁾ 개념임을 뜻한다. 칸트가 강조하고 있듯이 순수한 (도덕적) 이성이 실천적임을 증명되어야 할 것이

16) I.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바이세델판 X권, 394쪽.

17) H. Schmitz, *Was wollte Kant?*, Bonn: Bouvier, 1989, 118쪽.

18) S. Neiman, *The Unity of Reason: Rereading Kant*,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26-127쪽.

아니라 보여주어야 할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순수한 실천이성으로서의 의지에 “선하다”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권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우선 이는 칸트가 이성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성이 단지 행복 달성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성은 그 존재 가치에 있어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¹⁹⁾ 왜냐하면 굳이 행복 달성의 수단에만 그 용도가 국한된다면, 차라리 그것은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생득적인 자연 본능에 의해서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칸트는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서 행복을 누리려 하면 할수록 참된 만족에서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성적인 고려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칸트는 단순히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성의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 이성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칸트는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있어서의 선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성의 참된 본분이어야 한다”²⁰⁾라고 말한다. 즉 실천이성의 참된 기능은 이미 그 개념 속에 전제되어 있는 자기입법적 의지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또는 일치하도록 의욕하는 이성적 의지를 산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의지의 선함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나 다른 목적 또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혹은 경향성의 저항과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도덕적 의지의 요구에 스스로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한” 의지인 바, 이를 위해 도덕적 이성 혹은 도덕적 의지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의지적 이성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기에 자기 자신에서 발견되는 이성의 근본 특성이 다. 따라서 선의지가 자기지시적 혹은 자기설명적 개념이라는 것은 순수한 실천이성이 근본적으로 자기입법적, 자기목적적, 자기관계적 능력과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순수한 실천이성의 자기관계성’에서 유래하는 선의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이성적 존재자를 칸트는 “인격”(Person)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자의 본성이 이성적 존재자를 이미 그 자신에 있어서의 목적 그 자체로서, 즉 단순히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특징짓고 있기 때문이다.”²²⁾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에게 선의지는 이성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이자 모든 행복에 대한 요구의 조건”이며,²³⁾ 그의 도덕철학의 체계에 있어서 “아르키메데스적 기점”²⁴⁾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칸트가 차후에 정언명법과 관련하여 인격 개념을 그토록 중요시하는 이유를 예상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이해되는 선의지의 선, 의지 자체의 선은 실천이성의 대상으로서의 선(악)과도 구분된다. 이성적 의지로서의 실천이성이 요구하는 객관적 원리(도덕법칙)에 따라서 행위하는 의지가 선의지요, 이러한 실천이성의 객관적 원리는 그 자체가 선의지의 선 즉 도덕적 선에 해당하는 반면, 대상으로서의 선은 그 대상을 산출하는 규정 근거에 따라서 도덕적 선

19) 칸트의 행복에 대한 개념 규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맹주만, 「칸트의 행복주의 비판과 도덕적 문화론」, 『칸트와 문화철학』, <칸트연구> 제11집, 한국칸트학회편, 철학과현실사, 2003, 77-102쪽.

20)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21-22쪽.

21) K. Steigleder, *Kants Moralphilosophie. Die Selbstbezüglichkeit reiner praktischer Vernunft*. 63-64, 109쪽 참조.

22)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60쪽.

23)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22쪽.

24) 임혁재, 『칸트의 도덕철학 연구』, 58쪽.

일 수도 있고 조건적 혹은 목적적 선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실천이성의 대상이 도덕적 원리로부터 규정되는 경우 그것은 도덕적 선이지만, 만일 행복의 산출이나 실현 또한 목적으로 할 경우 이때의 실천이성의 대상으로서의 선은 조건적 선이다. 한마디로 칸트에게 이성적 의지와 도덕적 선은 그 근원에서는 동일한 것이며, 이를 단적으로 다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선의지이다.

4. 선의지와 의무

칸트의 의무에 대한 개념 규정은 아주 엄격하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칸트가 의무를 ‘선의지’ 및 ‘법칙에 대한 존경심’과 관련짓는 방식이다.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이다.²⁵⁾

행위의 모든 도덕성은 행위가 산출하게 될 것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아니라 의무에서 그리고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에서 정해진다. 인간과 모든 창조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 도덕적 필연성은 도덕적 강제(Nötigung) 즉 구속성(Verbindlichkeit)으로, 그리고 이 구속성에서 기인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로 나타나게 된다.²⁶⁾

그러면 먼저 의무와 선의지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칸트가 도덕성의 근거 확립을 위한 탐구의 실마리로 맨 먼저 내세운 선의지는 칸트의 눈에 일상적 의식 속에 깃들여 있으며, “타고난 건전한 오성 안에 이미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발되어야 하는 것이다.”²⁷⁾ 바로 이처럼 계몽되고 계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선의지가 우리의 일상적 도덕의식을 통하여 발견되고 그 존재를 일러주는 징표가 다름 아닌 의무의식이다. 칸트 스스로도 “선의지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무 개념을 다루려고 한다.”²⁸⁾고 밝히고 있다. 단적으로 칸트에게 있어서 “의무는 모든 가치를 능가하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의 조건이다.”²⁹⁾ 칸트가 이런 의무 개념에 주목했다는 사실은 윤리학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의무 개념을 통해서 ‘그 자체로 선한 의지’(ein an sich guter Wille)를 통찰함으로써 칸트는 전통적으로 최고선의 이상이었던 행복과 같은 개념이 자연적 선에 속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연적 선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와는 대립하면서 동시에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비자연적인 도덕적 선의 개념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의지의 조건으로서의 의무 개념이란 무엇인가? 의무의식이 선의지의 존재를 알리는 징표라면 의무 개념 자체는 그런 의식의 배후에서 그 의식을 지배하는 행위의 주관적 원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것이 주관적 원리라 함은 의무 개념 자체가 이미 의무의식의 배후에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결정지어주는 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의무 개념은 어떤 주관적인 제한과 방해로 받으면서도 선의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과 장애가 선의지의 개념을 감추어서 불

25)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26쪽.

26)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203쪽.

27)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22쪽.

28)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22쪽.

29)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30쪽.

분명하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대조를 통해서 그것을 한층 더 두드러지게 하며 더 더욱 밝게 드러나 보이게 한다.”³⁰⁾ 즉, 어떤 행위가 이익이나 경향성에 자극받는 경우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이런 제약을 물리치고 의무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결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본인이 바로 선의지다. 그런 점에서 “의무에서 하는 행위”란 곧 “주관적인 제한과 방해로 받고 있는 선의지에서 하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의미의 의무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혹은 우리의 의지가 선하다는 것을 일러주는 증거다. 하지만 선의지와 의무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존재론적으로는 의무에서 하는 행위가 가능하려면 선의지를 전제해야 하지만, 인식론적으로는 의무의식이 선의지에 선행해야 한다. 더욱이 선의지는 그 자체가 도덕적 소질이 능력이지만, 만일 이로부터 곧바로 어떤 행위가 실행될 수 있다면 그런 (선)의지는 완전한 신적인 의지나 다름없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의무의식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는,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가 없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선의지와 의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한편으로는 선의지는 인간이 도덕적 소질과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만을 적시해 줄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행위가 의무에서 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선의지를 조건으로 해서 행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때로는 의무에서 한 행위라고 믿고 있어도 그것이 타율적 동기나 외적인 강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칸트가 의무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고, 또 행위의 도덕성을 정언명법이라는 절차와 심사를 통해서 평가하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선의지는 유한한 인간의 의지다. 때문에 여기에는 언제나 경향성과 관계하는 제약이나 장애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저항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실행하려는 의지가 선의지다. 왜냐하면 의무란 이미 거기에 극복되어야 할 욕구나 경향성이 맞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의지가 단지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다.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택하지만 그것이 발휘될 때에만 부득이 경향성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뿐이다. 오히려 이런 경향성 때문에 선의지의 존재는 의무에서 하는 행위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다만 이런 제약으로 인해 선의지는 유한한 인간적 조건에 보자면 의무에서 행위하는 의지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의무가 실제로 선의지를 기초로 한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거나 착각일 수도 있다. 칸트 역시 이런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칸트는 이처럼 선의지와 도덕적 의무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불확실성을 선의지의 법칙 혹은 의무의 법칙이라 할 도덕법칙(정언명법)을 통해서 분명히 제거하고자 했다. 그러면 어떤 동기나 의도가 선의지를 선하게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매킨타이어처럼 단순히 “선의지의 유일한 동기는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려고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의도한다”³¹⁾는 식의 답변은 자칫 칸트가 경계하는 맹목적인 추종으로서의 도덕적 광신주의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의무에 대한 칸트의 보다 상세한 규정을 통해서만 이러한 물음에 올바르게 답할 수 있다.

칸트가 강조하듯이 “의무에서”(aus Pflicht) 즉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서” 한 행위, 다시 말해 오직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도덕적이다. 심지어 행위의 결과가 의무에 합치하더라도 그 동기가 오직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가 아닌, 즉 칸트의 용어를 따르면,

30)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22쪽.

31) A. MacIntyre, *A Short History of Ethics*, New York, 1966, 192쪽.

“합의무적인”(Pflichtmäßig) 행위의 경우에도 그것은 도덕적이 아니다. 즉 칸트는 “의무에서 하는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 성취하게 될 의도(Absicht)에서가 아니라 그 행위를 규정하는 준칙(Maxime)에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한다.³²⁾ 이러한 차이, 예를 들어, 타인을 자신의 즐거움이나 동정심에서 도와주는 사람과 의무감에서 도와주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준칙에 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의 준칙이 나 자신의 주관적 만족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 만일 나 자신에게만 타당하다면 그것은 타인의 경우에는 부당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 만인에게 타당한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준칙에 근거를 두고서 그러한 행위를 피한 의지만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선하다.”³³⁾

일반적으로 모든 도덕적 문제들은 이미 도덕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도덕적 의무를 실감하며, 이와 함께 시비 판단의 척도 역시 분명히 의식하게 되며, 비록 이것을 하나의 보편적 형식으로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해도,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서 이 같은 일상적인 도덕적 판단에 쉽게 만족하거나 현혹되는 통속적 이성으로부터 실천철학으로 이행하는 것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비록 일반인이 이러한 의무 개념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의무의 기초가 되는, 즉 의무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지어주는 근거에 대한 더 이상의 천착이 없다면 인간의 이성 자신에서 유래하는 유혹을 완전히 떨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덕적 의무의 확실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채 단순히 통속적인 원칙에 근거할 경우에, 이성의 자연적 본성에 있는 성향(Hang), 즉 “의무의 모든 명령에 강력하게 저항하여 자신의 욕구와 경향성(Neigung)의 전체적 만족을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서 구하려는 성향”³⁴⁾에 쉽게 지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향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자연적 변증론이다. 이는 “이성의 자연 본성이 갖는 성향”³⁵⁾으로서,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 본성에는 이처럼 ‘자연적 변증론’을 불가피하게 유발하는 성향, 즉 자신의 경향성의 만족을 위해 이성의 도덕적 요구를 경향성의 요구에 종속시키려는 강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태 발생을 차단하고 해소하고 또한 바로잡기 위해서 칸트는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확고한 도덕적 기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칸트는 선의지의 존재를 알려주는 의무 개념은 비록 각 시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항상 그 도덕적 정당성은 부인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게다가 “순수한 의무로부터 행위하는 심정(Gesinnung)”³⁶⁾의 존재를 부인하고 모든 행위가 다소간의 자기애의 표현임을 주장한 철학자의 경우에도 그들은 도덕성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지적한 것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칸트 자신도 자기애에 좌우되어 행위하는 인간 본성의 나약함과 불순함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간파하고 있다.³⁷⁾ 그러나 칸트는 경향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자연 본성의 힘이 아무리 막대하다 하더라도,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힘이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윤리학자로서의 자신의 임무가 의무의 확실한 도덕적 기초를 확립하는 일임을 강조한다.

32)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26쪽.

33)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28쪽.

34)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32쪽.

35) *Kritik der reinen Vernunft*, B 825/A 797.

36)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33쪽.

37)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34쪽.

5. 도덕법칙과 도덕적 감정

선의지는 의무 개념은 물론 도덕법칙 또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과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선의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오직 그것이 옳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를 행하려는 의지의 징표로서의 의무 개념에 있었는데, 이에선 선의지 개념만이 아니라 이미 의무 일반의 보편적 척도가 되는 법칙에 대한 개념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이 의무 개념을 매개로 해서만 선의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은 동시에 의무의 법칙 즉 보편타당한 도덕적 당위로서의 법칙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고 또 이에 따른 행위를 선택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히 의무를 넘어서 (도덕)법칙 또한 함께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인 한 의무의 법칙은 당연히 모든 인간에게 보편타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도덕법칙이다. 칸트의 논리에 따르면, 의무를 말하면 당연히 그 법칙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사태로 부과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칸트는 “도덕법칙은 순수 이성의 사실(Faktum)로서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아프리오리하게 의식하며 필증적으로 (apodiktisch) 확신한다”³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도덕법칙은 선의지 및 의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칸트에 의하면, 도덕법칙은 단적으로 선의지의 최종적인 규정 근거이다. 그것이 의지 자신의 법칙인 한, 도덕법칙은 자유의 법칙 혹은 자유의지의 법칙이자 실천이성의 법칙이다.³⁹⁾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내지는 경향성의 총체적 만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라는 측면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다.⁴⁰⁾ 즉, 이 도덕법칙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는 행위의 아프리오리한 도덕적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는 인간의 특수한 우연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 칸트의 저서의 명칭이기도 한 “도덕형이상학의 정초”를 오늘날의 명칭으로 말하면 “순수윤리학의 정초”라 표현할 수 있다. 칸트적 의미의 순수윤리학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행위에 있어서 경험적 원리와 요소를 사상하고 오직 이성적 원리와 요소의 적출 및 정당화를 통해 윤리학의 학적 기초와 원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대상이 바로 도덕법칙이다. 이 도덕법칙은 이성적 존재자가 따라야 할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한 실천법칙, 이성적 존재자의 실천법칙이며,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의지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법칙이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오직 이성적 존재자라는 보편적 개념에서 도출되어야 한다.⁴¹⁾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칸트는 이러한 법칙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 이성적 존재자인 모든 인간이 자명하게 의식하고 있는 일상적인 의무의식으로부터 그 가능성을 점검하여 그 정당성을 입증해 보이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면 의무 개념을 기초로 하여 도덕적 행위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기준으로서 확립되어야 할 도덕법칙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또 이는 의무 자체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즉 “의지가 단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한 법칙의 표상이 그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서 의지를 규정해야 하는데, 그런 법칙은 도대체 어떤

38)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161쪽.

39) P. Stekeler-Weithofer, “Willkür und Wille bei Kant”, 309쪽.

40)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32쪽;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150쪽.

41)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40쪽.

종류의 법칙일 수 있는가?”⁴²⁾ 이러한 도덕법칙은 어떻게 발견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지만 의무로부터 출발할 경우 경향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의무의 법칙이지 그것이 도덕법칙 자체인 것은 아니다.

칸트 자신도 이 도덕법칙의 절대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도가 달리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칸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도란 “이성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모든 현상으로부터 독립해서 무엇이 일어나야만 할 것인가를 명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길밖에는 없다.”⁴³⁾ 이러한 길에서 최초로 마주치게 되는 것, 즉 의무로부터 전진적 분석을 거쳐 도달한 도덕성의 원리가 바로 정언명법이다. 이 말은 곧 칸트의 도덕법칙이란 모든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 적용되는 법칙, 따라서 순수 의지를 규정하는 유일한 근거인 바,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자의 본질 규정에 직접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의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원리는 정언명법이지 도덕법칙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선의지와 의무의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⁴⁴⁾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갖는지, 즉 ‘도덕법칙에 대한 인식’은 곧바로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해 “의무의 근거는 도덕법칙 속에 있지만”⁴⁵⁾ 의무로부터 도덕법칙을 직접 연역할 수는 없으며, 경향성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인간에게 도덕법칙은 의무의 법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로 정언명법이다. 그러기에 칸트는 전진적 분석의 정점에 이르러 “정언명법은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의 정식에 해당한다”⁴⁶⁾라고 적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선의지를 소유한 행위 주체에게서 발견되는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이 정언명법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듯이, 행위 주체의 주관적 동기 속에는 분명 도덕법칙 자체는 아니지만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엄존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도덕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성(神聖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強制)의 법칙이다.⁴⁷⁾

그러므로 선의지와 도덕법칙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의무의 개념 규정에서 뒤로 미루어 놓았던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의 의미를 살펴볼 때가 되었다. 칸트에 의하면, 의무와 도덕법칙과 필연적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Achtung)”이다. 오히려 주관적으로는 이런 존경심이 더 일차적이다. 칸트가 말하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도덕적 감정(das moralische Gefühl)의 일종인데, 이 감정은 형용상의 모순이라 할 수도 있는 이성적 감정이다.⁴⁸⁾ 정확히 말하자면, 감정이긴 하지만 이성에서 그 근원을 갖는 감정이다. 칸트는 말하기를 “도덕적 감정은 오로지 이성이 산출한 것이

42)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28쪽.

43)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35쪽.

44)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251쪽.

45) *Kritik der Urteilskraft*, 438쪽 각주.

46)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71쪽.

47)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204쪽.

4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맹주만, 「도덕적 감정 - 후설의 칸트 비판」, 『칸트와 현대 유럽철학』, <칸트연구> 제7집, 한국칸트학회편, 철학과현실사, 2001.

다. 그것은 행위의 관정에 쓰이지 않고, 혹은 객관적인 도덕 법칙의 확립에도 쓰이지 않고, 오직 도덕 법칙을 그 자신에 있어서 준칙으로 삼기 위한 동기로 쓸 뿐이다.”⁴⁹⁾ 한마디로 도덕법칙이 우리의 의지를 구속함으로써 갖게 되는 감정이다.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의식이 지니는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측면”⁵⁰⁾과 관계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의무에서 하는 행위의 필연성은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하는 행위의 필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순수한 이성적 존재자의 도덕법칙이 인간에게 드러나는 방식인 (정언)명법은 의무를 위한 의무에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의무 자체가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된다. 즉 존경심이라는 감정은 의무로부터 행위하는 주체에게 주관적 동인을 제공해 준다. 이 존경심의 감정이 다른 아닌 이성이 산출하는 도덕적 감정이다. 이를 칸트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존경심은 [외부의] 영향을 통해서 느껴진 것이 아니라 이성 개념에 의해서 스스로 산출된 감정이며, 따라서 경향성이나 공포와 같이 받아들여지는 모든 감정과는 특별히 구별된다. 내가 직접 나에게 대한 법칙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을 나는 존경심을 가지고 인식하며, 이것은 곧 내가 나의 감관에 다른 영향의 개입을 허용함이 없이 나의 의지가 그 법칙에 직접 복종한다는 의식을 의미한다. 법칙을 통한 의지의 직접적인 규정, 그리고 그런 규정의 의식을 존경심이라 한다. 그래서 존경심은 [행위] 주체에 대한 법칙의 [작용의] 결과이지 그 원인으로 볼 수 없다.⁵¹⁾

이 때문에 칸트에게 있어서 선의지와 관련하여 주관적으로는 의무에서 하는 행위, 법칙에 따라서 하는 행위,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동일한 지향점을 갖는다. 비록 도덕적 감정은 도덕법칙의 기초도 근거도 될 수는 없지만 도덕적 행위의 주관적 동기로서 객관적으로 도덕법칙이 하는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선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법칙을 존경하는 도덕적 감정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의 선의지는 이성적 의지, 도덕적 이성, 도덕적 의지, 한마디로 자유와 도덕성의 초석으로서 그의 도덕철학 구석구석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다. 칸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도덕형이상학정초』가 의도하는 근본 목적은 “도덕성의 최고 원리의 탐구와 확립”⁵²⁾에 있으며, 이 저서의 세부 전개는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정언명법이다. 칸트에 의하면, 우리는 행위의 도덕성을 보편타당한 도덕규칙과 도덕법칙에 의거해서 판단한다. 또 그것이 실제로 타당한 도덕적 행위이기 위해서는 도덕법칙의 실제적 잣대라 할 정언명법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정언명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도덕성의 평가와 심사라는 객관적 잣대와 절차를 좌우하고 결정하는 요체가 바로 선의지이다. 이런 선의지는,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의식이나 의무감 속에서 존재하고 또 작용하고 있다. 평범한 인간 모두가 한결같이 의식하고 있으며 또 그 때문에 실제로 발휘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오히려 이

49)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197쪽.

50) R. J. Sullivan, *Immanuel Kant's Mor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134쪽.

51)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28쪽 각주.

52)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16쪽.

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선택할 때면 더욱 분명히 그 존재를 실감할 수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그것은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칸트의 경우에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이 자유의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의지의 자유, 즉 인간 의지의 자율성을 뜻한다. 이 자율 의지는 동시에 자기입법적 의지로서 법칙을 수립하는 원천과 근거를 제 자신에서 길러 내는 자기관계적 이성 능력이다. 이런 인간적 의지 규정의 핵심적 개념이 바로 선의지다. 때문에 칸트의 선의지 개념은 그의 의무 윤리와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의 덕 윤리와 비교할 때도 행위 규범과 덕 형성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덕적 기초와 근거를 제공해준다. 덕 윤리가 본성적인 덕목들의 형성과 그것이 갖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순수한 의미의 도덕철학의 영역을 넘어서야 하는 반면에, 칸트는 우리가 갖추어야 하고 또 추구해야 할 덕목들의 도덕적 기준과 척도 및 그 가능한 한계를 선의지 개념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다.

K C I

참고문헌

- Kant, I., *Immanuel Kant Werkausgabe in zwölf Bänden*,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68. 본문 인용에서는 <바이세텔판>으로 표기.
- _____,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Band VII.
- _____, *Kritik der reinen Vernunft*, Band III/IV.
- _____,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Band VII.
- _____, *Kritik der Urteilskraft*, Band X.
- 백종현, 「칸트: 현상의 존재론」, 『칸트와 형이상학』, <칸트연구 1>, 한국칸트학회편, 철학과현실사, 1995.
- 임혁재, 『칸트의 도덕철학 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 맹주만, 「도덕적 감정 — 후설의 칸트 비판」, 『칸트와 현대 유럽철학』, <칸트연구> 제7집, 한국칸트학회편, 철학과현실사, 2001.
- _____, 「칸트의 행복주의 비판과 도덕적 문화론」, 『칸트와 문화철학』, <칸트연구> 제11집, 한국칸트학회편, 철학과현실사, 2003.
- Aune, B., *Kant's Theory of Morals*, Princeton/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Baumgartner, H. M., *Kants "Kritik der reinen Vernunft": Anleitung zur Lektüre*, 2. durches. Aufl., Freiburg/München: Verlag Karl Alber, 1988.
- Beck, L. W.,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 Bittner, R., *Moralisches Gebot oder Autonomie*, Freiburg/München: Verlag Karl Alber. 1983.
- Harbison, W. G., "The Good Will", *Kant-Studien* 71, 1980.
- Hudson, H., "Wille, Willkür, and Imputability of Immoral Actions", *Kant-Studien* 82 (1991).
- MacIntyre, A., *A Short History of Ethics*, New York, 1966.
- Neiman, S., *The Unity of Reason: Rereading Kant*,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Schmitz, H., *Was wollte Kant ?*, Bonn: Bouvier, 1989.
- Steigleder, K., *Kants Moralphilosophie. Die Selbstbezüglichkeit reiner praktischer Vernunft*. Stuttgart/Weimer: J.B. Metzler, 2002.
- Stekeler-Weithofer, P., "Willkür und Wille bei Kant", *Kant-Studien* 81 (1990).
- Sullivan, R. J., *Immanuel Kant's Mor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Kant and the Good Will

Joo-Man, Maeng

In this paper I deal with Kant's concept of a good will in the relations with the main ideas of his moral philosophy. This notion of a good will is impressive, but it is by no means clear how it is meant to be related to the other main ideas. In order to read correctly and understand properly a good will in Kant's philosophy, especially presented in the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and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my particular interest is to find out the real meaning of the relations of reason and will, Will and Willkür, a good will and the good, a good will and duty, a good will and the moral law, a good will and the moral feeling.

According to Kant's claims, a duty is the necessity of an action from respect for law, or an action entirely motivated by recognition of the moral law. Kant's argument is then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morality must be one that is consistent with this conception of duty, thus one that is independent of any particular purpose or end an agent may have but at the same time is still capable of motivating a human being as a rational agent to action. Success in this argument depends on making clear correctly the relation between reason and will for the most part.

Speaking of practical reason, the most important one of its own functions is the power of self-direction, self-relation, and self-originating. By the way, if practical reason and will is compared, they have several things in common. The practical reason divide into the pure practical reason and the empirical practical reason, also similarly in a broad sense, there are two senses of will, Wille and Willkür. Wille as practical reason is the legislative function, and Willkür as a freely choosing power is the executive faculty of man. And each sense of will has its own accompanying sense of freedom. The freedom of Wille is autonomy, displayed in the giving of moral law to Willkür as an unconditional practical law which is derived from no other source than Wille itself. In this respect, the Wille is the moral reason, moral will, the rational will, and the pure practical reason. And since Willkür has a power of freely choosing between moral and inclination, the freedom of Willkür is spontaneous and neutral. Nevertheless Wille and Willkür are merely two different employments of the same faculty. To the ultimate, free will and will under moral law, an action from duty and moral feeling are one and the same.

Key Words: The good will, reason, Wille, Willkür, duty, The moral law, moral feeling

논문접수	2005년 3월 16일
논문심사	2005년 4월 21일
심사완료	2005년 5월 6일

KCS I